

‘화폐 태도’관련 연구동향 분석

Trend Analysis about ‘The Attitude towards Mone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유 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 수 : 문 숙 재

Dep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oo, Soo-Hyun

Dept. of Consumer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Moon, Sook-Ja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 towards Money’ research trend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issues and implications through a contents analysis. To accomplish the study object, 4 analysis categories were selected based on reference study to review the research subject, methods of data collection, research objects, and an analysis of the methods, found in 31 articles in journals and dissertations from 1996 to 2009. The were made in early 1990, (an increase in related research since 2000); however, the object of study is too limited, with an overemphasis on research methods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method of most articles was mainly limited to the quantitative study. Based on the results, research directions and research limitat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leisure research.

▲주요어(Key Words) :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연구동향(research trend), 화폐태도(money attitude)

I. 서론

자연경제시대에서 화폐경제시대로 변화하면서, 화폐는 가치척도와 교환수단이라는 본원적 기능과, 지급수단과 가치의 보장수단이라는 부차적 기능과 같은 경제관계의 매개체로서 객관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화폐의 객관적 기능은 특히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가와 사회에서 화폐의 역할이 커질수록, 개인의 삶에서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크고 중요해졌다. 특히 구매활동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화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소비자의 심리적, 주관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유용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Garman & Fogue, 1997; Goldberg & Lewis, 1978; Hollowell & Grace, 1991).

화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인해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의 심리적, 상징적 의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화폐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화폐태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들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는 화폐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과 관련된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화폐 태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로써, 1978년 Goldberg와

* 주 저 자 : 유수현 (E-mail : sooh517@nate.com)

** 교신저자 : 문숙재 (E-mail : sjmoon@ewha.ac.kr)

Lews, 1980년 Rubinstein, 1982년 Yamunchi와 Temple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84년 Furnham은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60개 문항의 MBBS를 개발하였고, 이후 이 척도를 이용한 여러 연구들이 실행되었다. 대부분 국내연구에서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onney Attitude Scale(MAS), Furnham (1998)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Tang (1995)의 Money Ethic Scale(MES)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돈에 부여되는 정서적, 상징적 의미가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하여 돈에 대한 태도, 화폐태도(Money attitud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화폐의 태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외국 척도를 변형하여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주제를 살펴보면, 화폐태도와 관련하여 소비행태를 살펴보는 논문(김정훈, 이은희, 2002: 박정숙, 2003: 홍은실, 2005: 윤철경, 조아미, 2004: 이신정, 2005: 우은정 2008: 등)이 가장 많았으며, 금전관리에 관련된 논문(허경옥, 1997: 우석봉, 2006: 김효정, 2005: 등)과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김정훈, 2002: 김정훈 D. Masuo L. Malrouto R. Hanashiro, 2002: 홍은실, 2001: 등)가 있었으며, 동기지향성(장재윤, 2000: 2002: 등)과 생활만족(김정훈, 1999: 김영숙, 2005) 까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Tang(1995)은 돈의 의미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가 세상사를 바라보는 참조의 틀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 동기나 소비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돈에 대한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소비자학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선행연구들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화폐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학문분야의 연구 경향을 진단하고 비판하여 향후 학문의 발전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과거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폐태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는 1970년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화폐태도'측정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이에 반에 국내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연구논문도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여도 50편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화폐태도'가 개인의 소비 동기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인에 적합한 척도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보다는 '화폐태도'에 관한 해외척도를 한국인 특히, 여자 대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설령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화폐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여러 가지 분석틀로 유목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앞으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화폐태도'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에 있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소비자분야에서의 내용분석 선행연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연구기법(Dane, 1990)으로, 신문학 분야에서 성행하기 시작해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채택사회과학의 기법이다(김재석, 2007). 이러한 내용분석은 문서(documents) 연구기저서, textbook 연구기학회지, journal 연구기월간지, 뉴스, 노래, 법조문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데이터 수집방법보다 효과적인 분석기법이 될 수 있다(오상훈, 고미영, 2009).

소비자 관련 내용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1990년대부터 일부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었

<표 1> 국내 소비자 분야 내용분석 관련 선행연구

연구분야	연구자(년도)
소비자교육(15)	이기춘(1992), 박명숙(1995), 김영옥(2000), 배윤정(2000), 김영옥(2001), 박형준(2003), 이승신(2003), 최현자(2005), 김태은(2006), 한성은(2006), 최은진(2006), 김영숙(2007), 김급숙(2007), 허경옥(2007), 고순화(2008)
소비자-광고(6)	이 철(1991), 박수진(2003), 최은섭(2006), 양 윤(2009), 유승엽(2009), 고은주(2010)
소비자정보(4)	신재은(1994), 이은희(1997), 서정희(2004), 심미영(2004)
기타(소비자특성, 소비자안전, 온라인소비자, 지속가능성, 외식산업, 소비문화)	황은애(2008), 이경은(2008), Pae, K. Christine(2006), 강명주(1995), 김성숙(1995), 이두원(2004)

주: 선행연구 참조 후 연구자 작성

으며(이철, 1991: 이기춘, 1992: 신재은, 1994: 강명주, 1995: 박명숙, 1995: 김성숙, 1995: 이은희, 1997), 2000년대부터는 소비자교육과, 소비자광고가 소비자 관련 내용분석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학술지 검색 사이트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2010년 6월 현재, 키워드를 ‘소비’와 ‘내용분석’으로 검색하였을 때, 학위논문 32편, 국내학술지논문 35편으로 총 67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검색된 국내학술지 35편중에서 31편을 살펴보면, 그중 소비자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15편이었으며, 소비자-광고와 관련된 논문은 6편, 소비자 정보와 관련된 논문은 4편이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내용분석 논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적인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한 빈도와 퍼센트를 이용한 연구동향과약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대상의 특성이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박수진, 2003: 서정희, 2004: 최은섭, 2006: 고은주, 2010)나, 연구대상간의 비교분석(배운정, 2000: 최은진, 2006: 이경은, 2008: 유승엽, 2009)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처럼 소비자분야에서의 내용분석은 논문의 정체성과 관련한 타

당성 문제를 검토하여 학문으로서의 역사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Sheldon, 1991; 최규환, 2003)는 점에서 소비자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화폐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와 관련된 해외의 선행 연구

물질을 대표하기도하며 물질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는 화폐에 대해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질, 성별,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른 태도를 부여할 것이다. 특히 자신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가족,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 화폐에 대해 갖는 신념이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화폐에 대해 갖는 느낌이나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이나 가치의 표현인 것이다(Lim & Teo, 1997). 이처럼 구매활동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적, 주관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Garman & Forgue, 1997: Goldberg &

<표 2> 화폐태도 척도 관련 국외 연구

척도	연구자	특징	영역	하위차원
Money Attitude Scale (MAS)	Yamauchi & Templer (1982)	화폐태도에 대한 심리적 측면 초점	<3가지>	<5가지>
			- power/ Prestige: 지위와 중요성, 우월감, 성취 포함 - security: 부정, 불안 내포 - retention: 인색, 축적, 강박적인 특성 포함	- power/prestige: 돈의 힘이나 지위의 상징으로 보는 것 - retention/time: 시간이나 저장의 차원으로 보는 것. - distrust: 돈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 - quality: 힘과 지위를 상징하는 기반으로 하는 질적인 측면 - anxiety: 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태도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MBBS)	Fumham (1984)	MAS척도가 갖고 있는 심리적 차원에 행동특성까지 포함 광범위한 다차원 척도	<3가지>	<6가지>
			- affective: 감정적 차원 - cognitive: 인지적 차원 - behavioral: 행동적 차원	- obsession: 돈의 지위와 중요성에 몰두한 강박적인 태도 - power/spender: 기분전환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 - effort/ability: 돈을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
Money Ethic Scale (MES)	Tang (1992)	심리적측면을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 행동적 측면 포함	<3가지>	<6가지>
			- affective: 감정적 차원 - cognitive: 인지적 차원 - behavioral: 행동적 차원	- 감정적 차원에서 돈을 선(good)으로 보는 태도와 악(evil)으로 보는 태도가 포함 - 인지적 차원에서 돈을 성취(achievement)의 척도로 인식하는 태도와 힘이나 자유(freedom)를 얻는 도구로 여기는 태도 및 존경(respect)의 척도가 된다고 여기는 태도 포함 - 행동적 차원은 태도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돈 관리 행동인 예산(budget)
Short Money Ethic Scale (SMES)	Tang (1995)	30문항으로 측정된 MES를 12문항으로 축소	<3가지>	<3가지>
			- success: MES의 감정적 차원의 선(good)과 인지적 차원의 성취(achievement), 힘과 자유(freedom), 존경(respect)포함 - budget: 예산행동 - evil: 돈을 악으로 보는 태도	

* 출처: 홍은실(2005), "중,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청소년 단계와 성별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p.103-122 (표 1)

Lewis, 1978: Hollowell & Grace, 1991).

Tang(1995) 등은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을 포괄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화폐태도라는 말 대신 화폐윤리(money ethic)를, Furnham(1998)은 화폐신념(money beliefs)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화폐태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폐 태도와 관련한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로써, 1978년 Goldberg와 Lews, 1980년 Rubinstein, 1982년 Yamunchi와 Temple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84년 Furnham은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60개 문항의 MBBS를 개발하였고, 이후 이 척도를 이용한 여러 연구들이 실행되었다. 대부분 국내연구에서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oney Attitude Scale(MAS), Furnham(1998)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Tang(1992)의 Money Ethic Scale(MES)와 Tang(1995)의 Short Money Ethic Scale(SMES)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표 2>는 MAS와 MBBS, MES, SMES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외의 화폐태도 척도 관련 해외연구들을 살펴보면, Lindgren(1980)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그들의 삶을 통합하고, 행동을 동기화시키며 기대와 계획, 불안과 실망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돈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행연구들은 돈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관리방식 등을 분류하였다. Gurney(1988)에 의하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삶에 있어서 행동과 목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Wernimont와 Fisparrick(1972)은 돈을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돈의 가치를 수치스런 실패요인, 사회적 수용성 요인, 경멸적 태도요인, 비도덕적 악의 요인, 안정성 요인, 사회적 배척요인, 보수적 직업 가치관 요인등의 7요인으로 구분한 후, 사람 간에 돈에 부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Wilhelm, Varcoe & Fridrich, 1993에서 재인용).

Gresham & Fontenot(1989)에 의하면 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힘, 저장감, 비난, 평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성에 따라 비난의 변인을 제외하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Medina, Saegert & Gresham(1996)은 Anglo-Americans와 Mexican-Americans간의 돈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 이상의 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힘, 저장감, 비난, 평등의 4가지 영역의 변인을 통해 저장감과 평등성의 2가지 영역에서 두 부족 간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Bailey와 Gustafson(1991)는 돈에 대한 태도와 인성 요소간의 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돈에 대한 태도를 강박적 태도(obsession), 부적절성(inadequacy), 저장감(retention)으로 나누고 이들과 성격간의 관계성을 논하면서, 이것이 개인의

돈을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하였다. Hollowell & Grace(1991)는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크게 광신자(enthusiasts), 지출자(spender), 미관여자(uninvolved), 회의론자(skeptics)로 나누고, 각각을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그들의 화폐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금전관리 스타일을 알아보았다. Mason(1992)은 개인의 재정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돈의 의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이 돈을 사용하는 데는 기분 전환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애정의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Wihelm, Varcoe & Fridrich(1993)는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람들의 강박적인 태도를 지니 화폐의 지위와 중요성에 몰두하는 사람(obsession), 화폐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retention), 기분전환을 위해 화폐를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를 지닌 사람(spend), 화폐를 노력의 결과로 보내는 태도를 지닌 사람(effort)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태도에 따라 재정적인 만족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 지출자적 태도를 지니거나 노력의 결과로 보는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재정적인 만족감이 높았으며, 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역시 돈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재정 만족감을 보여주었다. Tang & Gillbert(1995)에 의하면 돈에 대한 태도를 윤리의 요소로서 감정적(evil, good), 인지적(achievement, respect, freedom/power), 행동적(budget)윤리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신고도윤리와 직업만족도, 자존감 등의 태도와 관련하여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Lim & Teo(1997)는 성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를 8가지영역으로 세분화하여 obsession, power, budget, achievement, evaluation, anxiety, retention, non-generous의 분류에 따라 점수화함으로써 돈을 비교하는 수단 내지 평가하기 위한 수단 등 남녀 간의 태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 보고하였다. Brandstatter & Brandstatter(1996)에 의하면 4가지 영역에 따라(bad, influence, spent, free, competence), 여성이 돈을 소비하려는 태도가 더 강하고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주관적인 돈의 가치와 부적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Hayhoe, Leach & Turner(1999)에 의하면, 돈에 대하여 관련 변인을 5가지 차원, obsession, retention, effort/ability, security, inadequacy로 구분하고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소유 및 소유카드의 수에 따라 개인의 obsession태도, retention태도와 부적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Lau(1998)는 기존의 연구(1995) 차별척도를 바탕으로 선-악, 정직-부정직, 힘, 흥미의 4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고등학생, 교사, 실업자 간의 화폐에 대한 가치에 따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방법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학문분야의 연구경향을 진단하고 비판함으로써 향후 학문의 발전계기를 제공해준다(최규환, 2003). 특히, 학문분야의 역사가 짧을수록 논문의 정체성과 관련한 타당성 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역사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Sheldon, 1991: 최규환, 2003).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메시지의 특성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데 사용되는 연구기법(Dane, 1990)으로, 신문학 분야에서 성행하기 시작해서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법이다(김재석, 2007). 이러한 내용분석은 문서(documents), 저서(textbook), 학회지(journal), 월간, 뉴스, 노래, 법조문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데이터 수집방법보다 효과적인 분석기법이 될 수 있다(오상훈, 고미영, 2009).

1) 분석대상연구논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 검색사이트인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이용하여 ‘돈에 대한 태도’와 ‘화폐태도’라는 키워드로 학위논문과 학회지논문을 검색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를 제목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학위논문 7편과 학술지 논문 13편이 검색되었으며, 주제어로 검색하였을 때는 학술지논문 4편이 검색되었다. ‘화폐태도’를 제목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학위논문은 3편, 학술지논문은 11편이 검색되었으며, 키워드검색에서는 학위논문 2편, 학술지 논문 5편이 검색되었다. 검색결과 중 분석에 부적합한 일부 논문들은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3편의 논문들을 분석대상 연구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유목선정 및 분석방법

내용분석에서 분석유목은 내용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문제에 적절한 분석유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익근, 2000). 분석유목은 연구목적에 부합되고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며, 상호 배타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김광웅, 2003; 홍성화, 최병길, 이성은, 2006).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해 4개의 분석유목을 선정하였

다. 게재 시기는 1996년~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까지 3단계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연구논문에 기재된 주제어(key words)들을 검토하여 소비행태, 금전관리,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동기지향성, 생활만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생활만족의 경우, 금전관리와 소비행태의 주제와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용척도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onney Attitude Scale(MAS), Furnham(1998)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Tang(1995)의 Money Ethic Scale (MES), Tang(1995)의 Short Money Ethic Scale(SMES)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에 사용한 하위영역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분석유목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 성인,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6개의 분석유목으로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밖에 시사사점 및 한계점은 연구의 결론부분에 시사점 제시, 정책적 제안 제시,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분석 요약하였다.

자료의 코딩은 분석유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연구대상논문들을 코딩하였으며, 코딩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사과정 수료자 3명의 코디(coder)들과 분류과정에 대해 논의한 후 코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유목에 대해 빈도를 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994년부터 2009년까지 ‘화폐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학위 및 학술지의 연구논문들의 게재시기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국외에서는 화폐태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1970년대 연구를 시작하고, 1980년에 척도가 개발되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4년에는 15편으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 6편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연구의 주제가 주로 물질주의나, 강박적 구매행동, 충동구매 등 문제성 소비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들(김정훈, 2001: 홍은실, 2001: 강희선, 2002: 이신정, 2004: 윤철경, 2003)이 많았는데, 이는 1998년

<표 3> 본 연구의 분석유목

분석유목	하위분석단위
게재시기	1996년~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연구주제	소비행태, 문제성 소비행동, 금전관리,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동기지향성
사용척도	MAS, MBBS, MES, SMES, 불분명
연구대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 성인,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표 4> 국내 '화폐에 대한 태도' 관련 연구논문의 게재시기

게재년도	빈도(%)
1996~1999년	5(16)
2000~2004년	15(48)
2005~2009년	11(35)
합계(%)	31(100)

<표 5> 국내 '화폐에 대한 태도'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주제	1996~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합계(%)
소비행태		3(33.33)	6(42.86)	9(100)
문제성 소비행동		5(100)		5(100)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1(14.29)	4(57.14)	2(28.57)	7(100)
금전관리	4(50)	1(12.50)	3(37.50)	8(100)
동기지향성		2(100)		2(100)

IMF사태 이후,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문제성 행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5>에 제시된 연구시기별 연구주제를 살펴 보면, 2000년 이전에는 '화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화폐태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논문의 연구주제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소비행태와 문제성 소비행동, 화폐태도의 시험적 연구, 금전관리, 동기지향성으로 대분류하였다. 소비행태를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들은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끼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장재운, 2002; 전유현, 2008; 홍은실, 2005)들은 물론, 여가생활이나 의류소비 등으로 구체적인 소비항목을 정해서 분석하고 있는 논문(김영숙, 2005; 김효정, 2005; 김정자, 2003)들도 있었다.

또한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연구되어온 문제성 소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들(김정훈, 2001; 홍은실, 2001; 강희선, 2002; 이신정, 2004; 윤철경, 2003)에서는 문제성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화폐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반해, 2005~2009년에는 화폐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마케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백은영, 1996; 김정훈, 2001; 강희선, 2002; 김정훈, 2002; 장재운, 2002; 서인주, 2006; 우은정, 2007)는 화폐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2000년 이전에 개발된 국외의 화폐척도를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의 제안점으로 국내에 적합한 화폐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화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화폐태도의 측정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분석대상이 된 논문들은 모두 서베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폐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에 사용된 화폐태도 측정도구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표 2>로 제시한 국외의 측정도구 Money Attitude Scale(MAS),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Money Ethic Scale(MES), Short Money Ethic Scale(SMES)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먼저 연구목적에 맞게끔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면, 이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에서 변형한 측정도구를 사용(홍은실, 황덕순, 2001;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 2001; 김정훈, 2002)하기도 하지만, 화폐태도 측정의 기본적인 틀은 네 가지 화폐 태도척도(MAS, MBBS, MES, SMES)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화폐태도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논문들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하위 분석의 하위항목을 제시하였다.

Money Attitude Scale(1982)과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1984)는 척도개발 년도가 가장 오래되었지만, 돈에 대한 태도의 심리적 측면(MAS)와 행동적 측면(MBBS)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화폐태도의 척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Yamauchi & Templer(1982)의 MAS와 Wilhelm, Varcoe & Fridrich(1993)의 연구척도를 수정한 논문이 총 31편 중, 9편이었는데 Varcoe & Fridrich(1993)의 연구는 Fumham(1984)의 MBBS를 수정-보완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MAS와 MBBS에 중복체크 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김영신(2001)의 연구척도 역시 Medina(1996) 등의 연구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인데 Medina(1996) 등의 연구 역시 Yamauchi & Templer(1982)의 MAS를 수정한 것으로 김영신(2001)의 연구척도도 MAS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서인주(2006)은 Fumham(1984)의 MBBS와 Tang(1992)의 MES에서 돈의 경제적 의미와 심리적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므로 이 역시 중복체크로 계산하였다.

연구방법에서 화폐태도의 척도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화폐태도척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주제에 맞게 척도를 변형하여 적용한 논문(윤철경, 2003: 이신정, 2004: 우석봉, 2005: 박정숙, 2002)도 있었으며 <표 6>에서는 ‘불분명’으로 나타나 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화폐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척도는 Yamauchi & Templer(1982)의 Money Attitude Scale(MAS)이 1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Fumham(1984)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MAS와 MBBS 중복체크 포함). 이에 비해, 1990년대 만들어진 Tang(1992,1995)의 Money Ethic Scale(MES)와 Short Money Ethic Scale(SMES)를 이용했다고 언급한 연구논문은 적었다.

하지만, 분석논문들에서 제시한 ‘화폐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하위항목의 빈도를 살펴보면, MES와 SMES의 하위항목이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서는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화폐태도 측정을 위한 하위항목의 빈도와 함께 그러한 하위항목이 실제 외국의 화폐척도의 어떤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이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화폐의 척도와 실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의 하위항목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이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시

한 화폐의 척도는 MAS와 MBBS가 가장 많았으며, MES와 SMES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했으나, 실제 연구분석에 사용된 하위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MES와 SMES의 하위항목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MES는 MES에서 문항의 수를 줄이고, 감정적-인지적-행동적 차원에서 분류하였던 항목을 성공, 악, 예산행동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성공의 척도’로 표현한 것은 MES가 아닌 SMES로 분류하였으며,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선과 악’이 아니라, ‘악(evil)’로 언급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SMES로 분류하였다. 다만, 예산행동이라고 언급하였을지라도, 예산행동을 포함한 돈 관리 행동의 전반적인 태도의 측정을 의미하는 MES의 "behavioral"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위항목을 살펴보면, ‘미래 안전의 도구’가 전체 31편의 논문 중에서 21편(68%)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는 MAS의 하위항목으로 돈을 시간이나 저장의 차원으로 보는 “retention/time”에 해당한다. ‘성공의 척도’는 전체 31편의 논문 중에서 20편(65%)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SMES의 선(good)과 인지적 차원의 성취(achievement), 힘과 자유(freedom), 존경(respect)포함하고 있는 "sucess"에 해당한다.

‘돈에 대한 불안감’은 돈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태도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MAS의 "anxiety"에 해당하며 19편으로 61%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빈도로 ‘감정 충족의 도구’는 기분전환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MBBS의 "power/spender"에 해당한다.

<표 6> 화폐태도 척도별 하위항목과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척도의 빈도

빈도	연구논문에 제시된 화폐태도 척도	하위 항목
17	MAS (심리적 측면)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 quality anxiety
14	MBBS (행동적 특성)	obsession power/spender effort/ability
5	MES	a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1	SMES	success evil budget
4	불분명	
41	합계	

주) 연구논문에 제시된 화폐척도를 중복 체크하여 계산함.

<표 7>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척도의 하위항목과 빈도

화폐척도	화폐척도의 하위항목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제시한 척도의 하위항목	빈도
MAS	retention/time	미래 안전의 도구	21
SMES	success	성공의 척도	20
MAS	anxiety	돈에 대한 불안감	19
MBBS	power/spender	감정충족의 도구	19
MAS	distrust	인색과 불신	16
MES	behavioral	예산행동	9
MBBS	obsession	강박적태도	8
MES	cognitive	인정받기 위한 수단	7
MAS	quality	돈의 사회적 힘 인식	7
SMES	evil	악의 상징	5
MBBS	power/spender	과시적 수단	5
MAS	power/prestige	재정상태에 대한 자신감	3
MES	behavioral	신중한 태도	3
MES	behavioral	폐쇄적 태도	2
MBBS	power/spender	지출경향	2
MBBS	power/spender	유희적 태도	2
MAS	quality	사회적 수단	2
MES	behavioral	비공격적 태도	2
MES	behavioral	더 나은 구매수단	2
SMES	success	자녀성공지향	1
MAS	distrust	회피의 대상	1
MES	behavioral	신용태도	1
MBBS	effort/ability	노력의 대가	1
MES	affective	가치로운 생활	1
MES	affective	선의 상징	1
합계			160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 해보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에서는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실제 화폐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화폐의 척도와 하위항목별 빈도이다.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이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MAS와 MBBS가 가장 많았으며, MES와 SMES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했으나, 실제 연구분석에 사용된 하위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MES와 SMES의 하위항목 역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빈도는 28(90.32%)편에 사용된, MBBS(power/spender)로 기분전환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지출자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MAS의 retention/time과 SMES의 success가 21(67.74%)편에 사용되었으며, MES의 behavioral 역시 19(61.29%)편에 사용된 척도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표 9>와 같이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국내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 31편중에 15(48.39%)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도 4편이 있었으며, 그 중 한편은 '문제성 소비행동'을 주제로 하였으며, 나머지 세편은 모두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에 관한 논문이었다. 이처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제는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전관

리'에 대한 주제가 4편이었다. 화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었음은 물론이고, 분석유목으로 정리한 5가지 주제에서 모두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은 6편의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었으며, 연구논문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거나, 12세부터 22세까지, 혹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소년'이라는 분석유목으로 모두 포함하였다.

특히, '문제성 소비행동'에 있어서 '대학생'과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서 소비행태를 다루는 연구가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인은 화폐에 대한 태도를 업무태도와 관련지어서 '동기지향성'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앞서 '문제성 소비행동'이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듯이, '동기지향성' 역시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에서 '성인'은 22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연구자가 '성인'으로 지칭한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소비행태와 금전관리가 있었으며, 소비행태의 경우 두 논문 모두 여가소비를 다루고 있었다. 박정화(2009)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중에서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여행사의 일반 패키지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 고객 316명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화폐태도

<표 8>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실제 화폐태도측정을 위해 사용한 화폐의 척도

화폐척도	하위항목	빈도(%)
MAS	retention/time	21(67.74%)
	quality	9(29.03%)
	power/prestige	3(9.67%)
	distrust	17(54.83%)
	anxiety	19(61.29%)
MBBS	power/spender	28(90.32%)
	obsession	8(25.80%)
	effort/ability	1(3.22%)
MES	cognitive	7(22.58%)
	behavioral	19(61.29%)
	affective	2(6.45%)
SMES	success	21(67.74%)
	evil	5(16.12%)
	전체	31(100)

<표 9> 연구주제별 연구 대상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	성인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합계
소비행태	0	2	3	1	2	1	9(28.13%)
문제성 소비행동	0	3	2	0	0	0	5(15.63%)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0	5	1	1	0	0	7(21.88%)
금전관리	3	4	0	0	1	0	8(25.00%)
동기지향성	0	1	0	2	0	0	3(9.38%)
합계	3(9.38%)	15(46.88%)	6(18.75%)	4(12.50%)	3(9.38%)	1(3.13%)	32(100)

주) 연구대상자를 중복 체크하여 계산함.

유형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고가품 소비성향 및 해외여행상품 선택속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분석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시사점과 한계점을 살펴보면, 화폐태도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화폐태도에 따른 소비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의 개발이나, 마케팅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데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상담가나 소비자교육자들, 그리고 소비자 개개인에게 금전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의 제시하고 있으며, 재무 상담자나 재정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한계점에 있어서는 모든 분석대상 연구논문에서 화폐태도의 척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에게 보다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문항수정 등의 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대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46.88%)과 청소년(18.75%)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대 간의 화폐태도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은 모두 서베이조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에 있어서는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논문(박정숙, 2000; 박정화, 2009)도 있었다. 또한 사회계층별 혹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단순히 발표된 결과에 의한 비교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며, 몇몇 구체적인 문항에서 일반적인 결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urnham의 MBBS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순 적용하기에는 서구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를 얻었고, 설명력도 크지 못했다. 따라서 문항수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논의

화폐에 대한 태도가 소비 동기나 소비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폐에 대한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소비자학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화폐태도측정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현재까지는 해외의 척도를 바탕으로 화폐태도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문분야의 연구경향을 진단하고 비판하여 향후 학문의 발전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과거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연구 과제와 연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폐태도와 관련한 국외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화폐 태도와 관련된 31편의 국내 논문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게재시기, 연구 주제, 사용 척도, 연구대상 등의 4개의 분석유목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게재시기는 1996년~1999년,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까지 3단계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연구논문에 기재된 주제어(key words)들을 검토하여 소비행태, 금전관리,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동기지향성, 생활만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생활만족의 경우, 금전관리와 소비행태의 주제와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용척도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oney Attitude Scale(MAS), Furnham(1998)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Tang(1995)의 Money Ethic Scale(MES), Tang(1995)의 Short Money Ethic Scale(SMES)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에 사용한 하위영역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분석유목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계, 대학생, 청소년, 직장인, 성인,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6개의 분석유목으로 나누었으며, 그밖에 시사점 및 한계점은 연구의 결론부분에 시사점 제시, 정책적 제안 제시,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분석 요약하였다.

게재시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화폐태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1970년대 연구를 시작하고, 1980년에 척도가 개발된데 비해,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5편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4년에는 15편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에는 '화폐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화폐태도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에 있어서, 소비행태를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들은 화폐태도가 소비행태에 끼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물론, 여가생활이나 의류소비 등으로 구체적인 소비항목을 정해서 분석하

고 있는 논문들도 있었다.

또한 2000년에서 2004년 동안 연구되어온 문제성 소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문제성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서 화폐태도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교육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반해, 2005~2009년에는 화폐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행태를 중심으로 마케팅적 함의를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화폐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는 화폐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2000년 이전에 개발된 국외의 화폐척도를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의 제안점으로 국내에 적합한 화폐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사용척도를 살펴보면, 국내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에 사용된 화폐태도 측정도구는 Money Attitude Scale(MAS),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MBBS), Money Ethic Scale(MES), Short Money Ethic Scale(SMES))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화폐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척도는 MAS이 1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BBS이 14편으로 가장 많았다(MAS와 MBBS 중복체크 포함). 이에 비해, MES와 SMES를 이용했다고 언급한 연구논문은 적었다. 하지만, 분석논문들에서 제시한 '화폐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한 하위항목의 빈도를 살펴보면, MES와 SMES의 하위항목이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이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MAS와 MBBS가 가장 많았으며, MES와 SMES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했으나, 실제 연구분석에 사용된 하위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MES와 SMES의 하위항목 역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 31편중에 15(48.3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이 6(18.75%)편으로, 대학생과 청소년에 연구대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으로는 화폐태도에 따른 소비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의 개발이나, 마케팅의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과 화폐를 사용하고 관리하는데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재무 상담자나 재정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비자교육의 측면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한계점이자 앞으로의 화폐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화폐태도의 척도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은 일괄되게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인에게 보다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문항수정 등의 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 대상에 있어서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46.88%)과 청소년(18.75%)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세대 간의 화폐태도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연구논문들은 모두 서베이조사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에 있어서는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논문(박정숙, 2000; 박정화, 2009)도 있었다. 또한 사회계층별 혹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단순히 발표된 결과에 의한 비교일 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지을 수 없으며, 몇몇 구체적인 문항에서 일반적인 결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urnham의 MBBS의 연구를 바탕으로 단순 적용하기에는 서구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과를 얻었고, 설명력도 크지 못했다. 따라서 화폐태도와 관련한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고려되고 있는 척도문항의 항목과 항목 내의 문항수정 등을 통해 기존 연구의 척도 항목을 구조화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것은 물론 앞으로의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계층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Vol.6, No.3.
 김경자(2003b).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김기욱 · 이승신(1990). 소비자의 주관적 경기전망과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김영숙(2005). 성인 소비자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4, No.5.
 김영신(2001).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Vol.4, No.3.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Vol.40, No.3.
 김정훈 · 동환숙(1999). 남녀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의 금전 관리 만족도와 생활양식 만족도에 대한 영향, **생활자원 개발연구**, Vol.1.
 김정훈 · 동환숙(1999). 남녀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의 금전 관리 만족도와 생활양식 만족도에 대한 영향, **생활자원 개발연구**, Vol.1, 20-28.
 김정훈 · 동환숙(200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5, No.3.
 김정훈 ·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0, No.6.
 김정훈 ·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김정훈 · D. Masuo, L. Malroufo, R. Hanashiro(2002). 여대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경험,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1, No.2.
 김효정(2005). 신용카드 이용여부에 따른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4, No.1.
 남수정 · 김주란(2008).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의 돈의 의미와 소비생활만족도, **소비문화연구**, Vol.11, No.3.
 박정숙 · 차경옥(2003). 대학생의 소비자의 돈에 대한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6.
 백광 · 이재홍 · 임종호(1999). 성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태도와 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2, 515-526.
 백은영 · 정순희(1998). 도시가계의 화폐태도와 유형과 지출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Vol.36, No.3
 서인주 · 두경자(2007).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사용 태도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Vol.11 No.3.
 심영(2004). 대학생 소비자의 소비지출 태도, 관리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Vol.5, No.3.
 윤철경 · 조아미, 백지숙, 유혜림(2003).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이도흙(2008). 18~19세기 가사에서 상품화폐경제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고전문학연구**, Vol.34.
 장재윤(2000). 동기지향성과 돈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2.
 정은주(1993). 기혼여성의 취업이 선택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정혜정 · 김정훈(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원광대학교 논문집**, Vol.32 No.2, 521-535.
 최현자 · 조혜진(2007).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화폐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3, No.1.
 허경옥(2002). 부채행동에 대한 소비자경험 및 태도분석, **소비문화연구**, Vol.5, No.1.
 허경옥 · 백은영 · 정순희(2001).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Vol.8, No.2.
 홍은식(2003). 중,고,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청소년단계와 성별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3 No.5.
 홍은실 · 황덕순(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Vol.4 No.2.
 홍은실 · 황덕순 · 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9, No.1.

- Bailey, W.C. & Lown, J. M.(1993). Obsession and power attitudes toward money: An American - Australian comparison. *AFCPE Annual Proceedings*, p235-252.
- Bailey, W.C. & Lown, J.M.(1992). Counting the coins; A cross Cultural evaluation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ACCI Proceedings*, p111-116.
- Bailey, W.C.(1988). Money Attitudes Scale. *AFCPE Proceedings*, p121-124.
- Bailey, W.C., Johnson, P., Adams, J.P., Lawson, Williams, P.K., & Lown, J.M.(199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 Annual*, 40, p178-185.
- Brandstatter, E. & Brandstatter, H. (1996). What's money worth?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value of money.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17, p443-464.
- Churaman, C.V. MMP(1997). A new tool for teachers and counselors. *ACI*, 1(1), pp14-18.
- Furnham, A.(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p 95-103.
- Garman, E.T. & Fogue, R.E. (1997). *Personal finance*.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Goldberg, H. & Lewis, R.T. (1978). *Money madness: The many sides of coin*.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 Gresham, A. & Fontenont, G. (1989). The differing attitudes of the sexes toward money: An application of the money attitude scale, *Advances in Marketing, Southwestern Marketing Association*, p380-384.
- Hallowell, E.M. & Grace, W.J. (1991). *Money and mind; Money style*. New York: *Plenum Press*.
- Hayhoe, C. R., Leach, L., & Turner, P. R. (1999). Discriminating the number of credit cards held by college students using credit and money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20, p643-655.
- Katona(1975),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p1-8.
- Medina, J. F., Saegert, J. & Gresham, A. (1996). comparison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mone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1), p124-144.
- Roberts, J. A., and Jones, E.(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53(2), p213-240.
- Rose, G. M., and Orr, L.(2007). "Measuring and exploring symbolic money meaning", *Psychology & Marketing*, 24(9), p743-761.
- Screms, John (2004). *Understanding Principles of Politics and the State*. *PageFree Publishing*, p234.
- Tang, T. L. P., Gilbert, P. R. (1995). Attitudes toward money as related to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stress and work-related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3), p327-332.
- Tang, T. L. P.(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attitudes toward money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p809-816.
- Tang, T. L. P., Furnham, A., and Davis, G. N. W.(2000).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pay differentials as a function of rater's sex and money ethic endorsement: the Matthew effect revis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p85-697.
- Lau, S., (1998). Money: What it means to children and adul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6(3), p297-306.
- Lindgren, H. (1991). *The Psychology of Money*. *Odessa, FL: Krieger*.
- Lea, S. And Webley, P. (1981). *The orie psychologique de la Monnaie*. Paper presented at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nomic psychology. Paris. (Hallowell, Grace, 1991). *Money and mind : money style*, New York; *Plenum Press*.
- Lim, V. K. G. & Teo, T. S. H. (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18, p369-386.
- Oleson, M. (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s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 p83-92.
- Wilhelm, M. S., Varcoe, K., and Fridrich, A. 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ounseling and Planning*, 4, p181-198.
- Yamauchi, K. T., and Templer, D. I.(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p522-528.

□ 접수일 : 2010년 07월 06일

□ 심사일 : 2010년 09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14일